

IBK기업은행

업무에 맞는 제품 다변화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IBM DB2 도입으로 TCO절감, 신규프로젝트에도 적용 확산



금융기관이 새로운 IT 투자와 도입을 고려할 때 주요 관심사항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과 비용 절감이다. 특히, IT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늘어나는 인프라 구축비용과 운영 및 관리 비용의 효율성 등을 필수적으로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신규 IT 투자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윤용로)이다. IBK기업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서버 가상화에 있어서도 선발주자의 역할을 했다. 올해 초 본격 가동한 가동된 IFRS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IFRS 시스템 구축 시, 보편성에 대한 가치보다는 성능의 우수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IBM DB2를 채택했다. 당시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DBMS로 타사의 제품을 고집하던 것을 고려해보면 IBK기업은행의 DB2 선택은 매우 과감한 시도라 평가받을 만하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성능이나 제품을 구축하고 운영하기까지의 관리와 지원 면에서 그 과감한 선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IBK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김정은 기자 jekim92@itdaily.kr

20% 이상 TCO 절감효과

지난해 말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DBMS는 메인프레임을 제외한 계정성 업무의 70% 정도가 타사의 제품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기존 DBMS의 경우, 고가일 뿐 아니라 매년 증가되는 유지보수비와 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조정으로 인한 부담 등이 증폭되어 IBK기업은행에게 DBMS TCO 절감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IBK기업은행은 DBMS TCO 절감의 방법을 IBM DB2 9.7에서 찾았다. IBM DB2 9.7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베타버전 체험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던 IBK기업은행의 개발자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아주 쉽게 DB2에 익숙해졌다. 타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IBK기업은행이 DBMS로 DB2 9.7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베타버전 체험 프로그램 당시 DB2 9.7의 기본 기능이 기존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뒀을 뿐 아니라, 기존 DBMS의 일부 업무를 DB2에 마이그레이션하는 테스트까지 했었다는 데서 그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어쨌건 그 결과는 매우 아주 만족스러웠고 IBK기업은행은 IFRS 시스템 구축에 IBM DB2 9.7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이 간편하고 쉽다

지난해 말 IBK기업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신용평가모형모니터링시스템 및 수익인식시스템 등의 신규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신용평가모형모니터링시스템과 수익인식시스템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DBMS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들이다. 신용평가모형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일일 배치 작업 수가 약 90건에 달하며, 일일 처리 데이터 양은 약 2억 건에 달한다. 수익인식시스템은 월, 분기 말 작업이 주를 이루는 시스템으로서 월 배치 작업수가 약 80건, 월 처리 데이터 양은 약 160만 건이다. 또 분기배치 작업 수가 약 30건, 분기처리 데이터 양이 약 200~300만 건에 이를 정도이다.

IBK기업은행 IT총괄부 시스템운영팀 김경필 차장은 “그 동안 기존 DBMS를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제품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 DBMS 개발자를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기존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DBMS를 사용하게 했을 때



IBM DB2 도입으로 TCO절감, 신규프로젝트에도 적용 확산하여 매우 과감한 시도라 평가받는 IBK기업은행

개발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생산성이 저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는 새로운 DBMS를 온라인성이 아닌 배치성 업무에 먼저 적용해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새로운 제품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규 프로젝트에 먼저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성 업무까지 적용 확대할 것”

IBK기업은행의 IFRS 시스템은 올 초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IBM DB2 9.7 도입에 따라 개발 생산성을 유지하며 TCO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향후 유지보수비 및 운영관리비를 포함한 향후 4년간의 4년간의 TCO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신용평가 모형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된 DB2의 스토리지 압축 기능을 측정한 결과, 테이블 용량이 평균 60% 이상 줄어들었으며, SQL 수행속도는 60%이상 절감되었다.

기존 제품에 익숙해 있던 개발자들이 IBM DB2 9.7을 사용하여 개발, 구축, 관리, 운영에 이르는 업무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함에 따라 생산성의 손실이 없다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

Case Study

이다.

김경필 차장은 “DB2 9.7은 타사 제품과의 호환성이 매우 우수하여 개발자들이 큰 문제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이니 만큼 도입 이후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특히 리스크 없이 TCO 절감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DBMS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DB2 도입 의미를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추진하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TA(Technical Architect) 조직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DBMS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DB2 9.7의 도입에 따른 만족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현재의 배치성 업무 외의 정보성 업무로까지 적용을 점차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CW**

IBK기업은행 IT총괄부 시스템운영팀 김경필 차장

호환성과 TCO 절감효과 높다면 계속 다변화 추구할 것”

DBMS의 TCO에 대해 고민했던 이유는.

기존 제품 공급 업체의 유지보수 정책이 바뀌면서부터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TCO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 타사 제품의 유지보수요율이 22%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할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TCO 관점에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오픈 소스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생각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IBK기업은행은 TCO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

DB2 9.7 도입 이후 나타난 효과는.

향후 4년간 20% 이상의 TCO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DB 관리자 입장에서는 DB2가 기존 사용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환경도 비슷해 개발자의 생산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만족한다. 개발자들이 기존 제품을 사용하듯이 편하게 DB를 코딩하고 있다. IBM DB2 9.7은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전체 DBMS의 TCO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다.

아직까지는 버그 패치를 해 본 적이 적도 없고 특별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다. 시스템을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가보야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DBMS 도입 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운영자 입장에서 다른 DBMS를 운영해 본 기업이 있다면 운영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규모가 작은 업무부터에 일부 적용해 POC 형태로 제품을 검증해 보는 것도 괜찮다.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